

ICR-와이즈스톤,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협력 MOU 체결



왼쪽부터 홍성욱 와이즈스톤 ICT시험인증 연구소장, 김덕용 ICR 대표, 이영석 와이즈스톤 대표, 심상우 ICR 부사장.

국가공인 소프트웨어(SW) 시험인증기관 와이즈스톤(대표 이영석)과 국내 대표 적합성평가기관 ICR(대표 김덕용)이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지난 21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ICR 본사에서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험인증 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사가 보유한 시험·인증 기술력과 산업 네트워크를 공유해 급변하는 ICT 산업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시험·인증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포석이다.

특히 다음달 1일부터 유럽연합(EU)이 시행하는 CE/RED (무선기기지침) 개정안에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이 공식 반영됨에 따라, 관련 시험·인증 수요가 글로벌 제조기업과 수출기업을 중심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두 기관은 선제적으로 사이버보안 시험 체계를 정비하고, 고부가가치 TIC(Test·Inspection·Certification)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ICR에서 100% 투자해서 폴란드에 설립한 ICR Polska는 RED인증을 발행하는 Notified Body(2703)로서 RED에 따른 사이버보안 인증이 가능하다.

ICR, 와이즈스톤, ICR Polska를 통해 국내 수출 기업들이 유럽연합의 CE/RED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신속하게 유럽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시험·인증 서비스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사는 △사이버보안 시험·인증 서비스 공동 수행 △ICT 시험인증 고객에 대한 상호 우대 △ICT 표준화 적용 확대 △시험기술 및 학술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사는 시험인증 분야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국내외 고객사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TIC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